

정서적 교감을 위한 디자인

불안정한 세상에서 현존적 기쁨 혹은 안락함을 갈망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자 하는 시도가 두드러진 가운데 인간의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곡선적 실루엣을 부각한 텍스처와 소파와 접재어는 단연 인기 품목이다. 레베카 테셀의 건축가 겸 디자이너 알린 아스마르 담만(Aline Asmar d'Amman)은 갤러리 로스나 올렌디(Galleria Rossana Oriandi)에서 (무느려움의 힘(The Power of Tenderness)) 전시를 7월/시 신행 송으로, 그녀의 시그니처 분홍빛 조지아(Georgia) 라운지 체어는 감미로운 리듬감을 자아낸다. 런던 기반 디자이너 라라 보힌코(Lara Bohinc)의 아나미(Anima) 체어는 묶여 팔팔가 울로 마상에 상무한 촉각적 경험을 선사하는데, 미러한 가구면으로도 상상은 촉각적인 인식자로 발바꿈된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포르로(Porro)는 35년 이상 협업해온 피에로 리소니(Piero Lissoni)의 세 가구 컬렉션을 통해 건축의 본질, 형태의 순수성, 디테일 추구, 지속 가능한 사고를 지향하는 신념을 이어갔다. 포로의 관계자는 "가변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 공간은 한층 유연하고 가변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이에 간결한 형태의 모듈식 가구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 디자인에 대답한 컬러 팔레트나 독창적인 패턴을 도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각적 유희를 넘어 제품 고유의 서사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사람들의 공간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낸다. 마르셀 반다스(Marcel Wanders)는 텍스처와 일컬어 옛 기억(Ancient Memories)으로 소재가 어떻게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지 탐구했으며, 인도의 자이푸르 러그(Jaipur Rugs)는 힌두교의 홀리 축제에서 영감을 받아 전통적인 러그 위에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를 흩뿌린 듯한 경쾌한 비주얼을 선사했다. 필리핀의 케네스 코본푸(Kenneth Cobonpue)는 과감한 예술적 비전을 토대로 프랑스의 전통 레이스 기법인 프리볼리테(Frivolite)에서 모티프를 얻은 꽃을 담은 의자 조지아(Georgia)를 탄생시켰다. 꾸준히 창의적 인재를 지원해온 롱샹(Longchamp)은 피에르 르나르(Pierre Renard)와 손잡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담아낸 의자를 완성하며 디자인에서 예술로 그 영역을 넓혔다.

- 1 알린 아스마르 담만의 조지아.
- 2 포르로의 유리 캐비닛 텍스-리브리스(Tex-Libris).
- 3 라라 보힌코의 애니마.
- 4 자이푸르 러그.
- 5 케네스 코본푸의 조지아 시리즈 체어.
- 6 앙토니오 차토의 세돈아(Sedona) 침대.
- 7 로르소의 카피 테이블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았다.
- 8 미그와이 커피 테이블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았다.



"나 여기 있어" 스테이트먼트 디자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 다재다능함, 고유의 물질성을 기반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금속성' 역시 앞서 소개한 운화하고 안락한 이미지와 상반되는 개성으로 꾸준히 주목받는 다. "나의 삶은 늘 이질적인 요소들로 채워져 있으며, 아무리 지명하다고 할지라도 이미 경쾌한 감정을 명백히 나타내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니나 아샤르(Nina Ashar). 비전가인 그녀가 이끄는 닐루파르 데포트(Nilufar Depot)의 오픈 10주년 기념전 (레퍼토리(Repertorio))는 과거의 온갖 공간을 결리리로 변신시켰고, 실버 라이닝(Silver Lining)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공간은 금속 특유의 견고한 오라를 가득했다. 캔틸레버가 가구 브랜드 기라(Ghidi)의 1961(Ghidi1961)과 니카 주판코(Nika Zupanc)는 바깥보는 거도에 따라 무지갯빛 태극을 발산하는 조이엘로(Gioiello) 거울로 신선한 에너지를 전한다. 독일 가구 브랜드 모브인베이스(MoiveinBASE)는 재활용 코르크 소재로 인체적 볼륨감을 살린 의자 및 테이블과 선형적인 미학을 극대화한 알루미늄 체어를 동시에 선보이며, 대조기를 부각했다. 이들 디자인한 베르너 아이슬링거(Werner Aisslinger)는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유연하게 기능하는 데일리 오브제에서 채워진 공간에 크리에이티브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토스카나 브랜드 폴트르노바(Poltronova)는 "가장적 품격이 해체되면, 무엇이 남게 될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했다. 드레이밍 기법으로 장식한 부스의 테이블은 X8C, 확장된 표면(ExtraSurface), 극도의 부드러움(ExtraSoft), 심오한 상징주어(ExtraSymbolism), 예외로운 질감(ExtraSmooth)과 같이 다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급진적인 디자인 철학을 앞세운 글로베리아 메추라기(AB)NORMAL)의 스킨과 탄생했다. 그곳에서 조우한 가자기 에타노 페세(Caetano Pesse)의 미케타(Michetta) 침대와 라우리우 갈레(Laurid Gallo)의 미그와이(Igna) 테이블이 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처럼 독창성을 북돋는 대담하고 감성적인 사물은 공간의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한다.

- 9 폴트르노바의 부스 테이블.
- 10 가자기 메추라기 테이블은 메추라기 부스.
- 11 닐루파르 데포트의 알루미늄.
- 12 모브인베이스의 두 가지 산반된 체어.
- 13 미그와이 커피 테이블은 친밀함을 상징하는 모티프로 거울.

